“영통사 복원 남북 화합과 평화의 상징”

개성 영통사 복원 15주년 회고전 연 무원 스님



개성 영통사 복원 15주년 회고전
5월 29일~6월 3일까지 광수사서

2002~2005년 복원 과정과 순례
현장 촬영한 사진 50여점 선보여

물자 수송 통로 북측과 큰 이견
당위성 앞세워 끈질기게 설득해

개성 영통사는 고려 제 11대 문종의 넷째 왕자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1055~1101)이 출가해 개성 외곽 오관산에 한국 천태종을 개창한 천년 고찰이다. 16세기 화재로 전소한 것을 2002~2005년 남북이 힘을 합쳐 복원해 화제가 됐다. 이후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 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2015년까지 매년 영통사 복원 기념법회와 대각국사 의천 스님 다례재를 조선불교도연맹과 공동 봉행해 왔다.

〈편집자주〉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남북 교류사업을 펼쳐온 대한불교천태종 대전광수사 주지 무원 스님〈왼쪽사진〉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북한 개성 영통사 복원 15주년 회고 사진전을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열었다.

“개성 영통사는 천태종 종조가 머물던 왕실 사찰인데, 화재로 전소돼 묻혔다가 1997년도에 대홍수가 나면서 사적지의 흔적이 모습을 드러냈죠. 이후에 당시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 등 북쪽의 요구로 복원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애국불교를 중요시한 까닭에 우리 천태종이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개성 영통사 복원은 남북 불교계의 우호 교류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종교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거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07년 11월, 천태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이 영통사서 분단 후 처음으로 대각국사 추모 합동 다례재를 봉행하며 남북한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2005년 11월 31일 개성 영통사 낙성법회서 남북한 스님이 함께 공동 발원문을 낭독하는 모습. 사진 왼쪽이 무원 스님.

하지만 뜻하지 않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2015년 이후 합동 다례재가 중단된 상태고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개성일대 성지순례와 영통사의 추가 보수 등 문화교류사업이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다고 무원 스님은 밝혔다.

‘천년의 기억’을 주제로 한 이번 회고전에서는 무원 스님이 2002~2005년 개성의 영통사를 남북합작으로 복원하는 과정과 성지순례 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50여 점이 선보였다.

이 사진들중 무원 스님이 첫 번째로 꼽는 감동의 명장면은 무엇일까? 스님은 “그래도 2005년 11월 31일 개성 영통사서 열린 남북한 합동 낙성 법회서 북측 스님과 공동발원문을 낭독하는 장면이죠. 지금도 그 사진을 볼때면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가슴 뭉클합니다.”

2001년 당시 천태종 사회부장이던 무원 스님은 그 이듬해인 2002년 말부터 영통사 복원불사 단장을 맡아 본격 불사에 팔을 걷어 부쳤다. 북측과 협력해 기와 46만여 장과 중장비, 마감재 등을 육상으로 수송했으며, 드디어 2005년 11월 31일, 1만 8,000여 평 규모에 29개의 전각을 복원하는 등 50여억원 상당의 대작 불사를 마무리했다.

“공사 단계서 가장 난항을 겪은 게 바로 물자 수송 통로였어요. 북측과 이견이 컸죠. 저희는 육로로 물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북측에서는 남포항 등 해상으로 보내달라고 난색을 표했죠. 하지만 육로 수송의 당위성을 앞세워 제가 끈질기게 설득했죠. 결국에는 북측에서 받아들이더군요.”

그동안 개성을 포함해 북한을 80번 정도 방문한 무원 스님은 현재의 남북 경색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다.

“영통사 복원은 남북한 평화를 여는데 분명히 교두보 역할을 했어요. 영통사 복원으로 성지순례에 이어 개성관광까지 이뤄졌는데, 영통사 복원이 한몫 톡톡히 했습니다. 개성의 육로를 통해 종교시민단체로서 처음으로 갔다는 점에서 뜻깊은 교류가 됐죠. 현재는 남북한 관계가 꽉막힌 지금 모두가 남북 화해를 위해 함께 발원코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천년의 기억’전을 마련했습니다. 부디 우리 민족의 일원인 북한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 화해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무원 스님은 지난 2002~2005년 개성의 영통사를 500여 년 만에 남북합작으로 복원한 뒤, 이 지역으로의 성지순례 사업, 남북 공동법회, 관광객 왕래 등 남북교류에 앞장서 왔다.

1979년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출가, 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수계 득도했고 인천 황룡사, 서울 명락사, 부산 삼광사 주지 등을 지냈다. 특히 2009년 국내 처음 다문화 사찰로 유명세를 떨친 명락사 주지로 있으면서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고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대전·세종·충남 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를 맡고 있는 무원 스님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불교의 사회복지와 대중문화 운동을 이끌고 있다.

한글대장경부터 근대 잡지까지 ‘한눈에’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새단장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사업단(단장 정승석)이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웹서비스 시스템(KABC)을 새단장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단은 전국에 산재된 불교기록문화 유산을 조사, 촬영하고, 원문을 탈초(脫草), 번역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불교 전통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현대화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9년부터 추진된 아카이브 웹서비스시스템 리뉴얼은 지난 7년 동안 구축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고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번 리뉴얼로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검색엔진을 새로 도입해 통합 검색의 성능과 질을 높였으며, 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웹 기반 집성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아카이브 DB의 성능을 고도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검색의 편리성과 다양한 검색 결과의 제공이다. 각각의 콘텐츠는 카테고리 별로 검색결과를 제공하고, 패싯(facet) 검색 기능을 도입하여 분야, 연도, 기관 등 검색조건별 결과 건수를 알 수 있다.

‘통합대장경’ 카테고리에서는 고려대장경 이미지와 한문 텍스트 및 한글대장경을 모두 경판별로 연동하여 검색할 수 있다. 그동안 고려대장경연구소와 동국역경원에서 수행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뷰어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고려대장경〉 각 경전의 표점을 수정하고 문단 단위로 원문과 번역문을 배치하였으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목차를 구성했다. 각 콘텐츠의 영역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개인화 기능이 강화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웹 인터페이스의 개선은 가독성과 함께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전체 화면에서는 모든 콘텐츠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고, 세부 콘텐츠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목록 화면을 표준화시켰다. 또한 KABC의 패밀리사이트인 불교학술원 홈페이지와 인터페이스의 연계성을 높였고, 홈페이지를 반응형 웹으로 개발했다.

근대불교잡지 31종 647권의 이미지를 구축한 것 또한 큰 성과다. 1902년 동양교보 제4호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 〈불교〉 전체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조선불교총동맹이 1931년 8월에 창간한 〈불청운동(佛靑運動)〉을 제공하고 있다.

정승석 ABC 사업단장은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웹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불교기록문화유산에 어린 향기를 느끼고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발견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찬불동요 창작곡집 ‘풍경소리 50집’ 발표

‘팔정도’ 등 총 10곡과 반주 음악도 수록

우리나라 창작 찬불동요의 시대를 열었던 ‘좋은 벗 풍경소리’가 찬불동요 창작곡집 ‘풍경소리 50집’을 발표했다. ‘팔정도’를 비롯해 모두 10곡의 노래와 반주음악을 수록한 기념비적인 이번 50집에는 좀 더 많은 대중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 대표를 비롯해 정유탁, 민선희, 함현상, 최미선, 조순영이 작곡에 참여했으며, 작사에는 덕신스님, 박성희, 황인선, 최미선, 최동호가 참여했다. 노래는 L.M.B.싱어즈, 진희원, 김애경, 손은경 등이 불렀다.

‘풍경소리’는 1996년 1집을 시작으로 매년 두 장씩 여름과 겨울에 발표돼 왔다. 전국 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단일 앨범으로 50집까지 25년 동안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풍경소리’는 불교계는 물론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창작 찬불동요 음반으로, 지금까지 ‘풍경소리’를 통해 발표된 창작 찬불동요는 400곡이 넘는다. 이번 앨범 역시 CD와 USB 두 가지로 발표됐다. USB에는 신곡과 함께 풍경소리 연등축제 음악, AR, MR을 모두 담았다.



풍경소리 50집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